



Ⅲ. 2018년 대담회 주요활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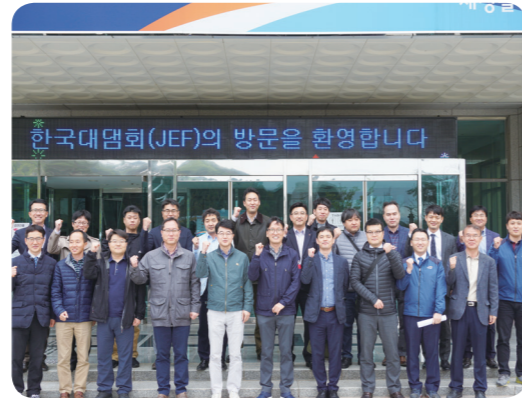


III. 2018년 대담회 주요활동



제1차 이사회 및 제46차 정기총회

2018년 2월 1일, 대담회의 2018년 첫 포문을 여는 제1차 이사회 및 제46차 정기총회가 서울삼정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. 총회 시작 전에 '18년도 포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, 총회 내용으로는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올해 계획에 대한 내용 의결과 함께 신입회장, 신입감사 선출이 있었습니다.



JEF 기술워크숍

대담회에는 현재 총 4개위원회가 활동 중인데, 그 중 대담회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JEF 위원회는 평화의담 건설현장에서 JEF 기술워크숍을 진행하며 젊은 기술자들 화합의 장을 가졌습니다. 매년 기술워크숍을 진행하며 조그만 뜻이라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워크숍을 통해 젊은 기술자들의 활발한 활동 및 대담회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.



미국대담회 연차회의 참가

미국대담회의 공식초청을 받아 한국대담회를 대표하여 김현식 처장(K-water)과 박동순 박사(K-water)가 미국대담회 연차회의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. 본 연차회의에 참석하여 한국대담회와 미국대담회 및 캐나다대담회와의 MOU를 추진하는 등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안고 왔습니다.



한국대담회&미국대담회 MOU 체결

2018년 7월 2일, 한국대담회와 미국대담회가 차후 전문가 교류, 교육협력 등 양 기관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. 한국대담회는 2017 미국 Oroville 댐 사고로 촉발된 댐 노후화 및 안전 분야 기술 정책 등 강화에 대한 실무적인 기술 습득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

국제대담회(ICOLD) 제86차 연차회의 및 26차 총회 참가

2018년 7월 1일 ~ 6일 동안 한국대담회가 연중 가장 크게 참여하는 행사인 국제대담회(ICOLD) 제86차 연차회의 및 26차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. 본 행사에는 총 81개국 대담회 관계자와 약 1,6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 한국대표단은 48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. 이번 연차회의에는 총 7편의 구두발표와 5편의 포스터발표, 총회에서는 2편의 포스터발표가 한국을 대표하였습니다. General Assembly(집행위원회)에는 한국대담회 대표로 기획부회장인 김봉재 이사(K-water)가 참석하여 표결권을 행사하였으며, 기술분과위원회 활동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께서 참석하시어 각 분과위원회의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. 이번 연차회의에서는 오로빌 댐 여수로 사고에 대한 특별 세션이 있었으며, 작년 연차회의 및 미국 연차회의에 참



석하며 추진한 미국대담회 및 캐나다대담회와 각각 MOU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.



한국대담회&캐나다대담회 MOU 체결

2018년 7월 4일, 한국대담회와 캐나다대담회가 MOU를 맺으며, 차후 공동심포지엄, 기술컨설팅 등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. 또한 댐 주변 공공안전을 위한 CDA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워크숍 참여 협력을 약속했습니다.



국제대담회(ICOLD) 제86차 연차회의 및 26차 총회 참가

2018년 8월 29일, 국제대담회(ICOLD) 제86차 연차회의 및 26차 총회 참가에 따른 성과 및 신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고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ICOLD에 직접 참가하지 못해 놓쳤던 정보 등을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서 대담회 활동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